

주요 도시들, 쥐 잡기에 개·고양이까지 투입



▲ 워싱턴DC의 한 주민이 개를 동원해 쥐를 잡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들끓는 쥐로 고통받는 미국 주요 도시 주민들이 개와 고양이까지 동원해 쥐를 잡고 있다.

20일 '문화일보'가 AFP 통신의 전달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워싱턴DC는 최근 몇 년간 쥐 개체 수가 계속 늘어나는 탓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워싱턴DC 내 인구가 늘고 온난화로 인해 기온이 오른 데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로 야외 식사 공간이 늘어나면서 쥐 번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땀이나 악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주민들은 쥐의 천적인 고양이와 개를 투입하고 나섰다. 개 훈련사를 비롯해 다양한 직업을 가진 주민들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만난 뒤 팀을 이뤄 활동한다.

설치류 학자인 보비 코리건은 "의심할 여지 없이 최근 개는 쥐를 잡는 도구로 부활했다."면서 개에 대한 상업적 수요도 증가했다고 전했다.

반려동물 단체 '인간동물구조동맹' 대표 리사 라폰텐은 이미 2017년부터 길고양이를 활용해 쥐를 잡는 '블루컬러 고양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지역사회 주민들이 길고양이들에게 음식과 쉴 곳 등을 제공해 빠르고 효과적으로 쥐를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게 프로젝트 취지다.

직업 내 혼인율 가장 높은 분야는 '의사'

미국에서 같은 직업끼리 결혼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의사로 조사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직업과 결혼 간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의사들은 18.5%가 의사와 결혼해 동종 직업 내 결혼 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전했다. 교수끼리 결혼하는 비율은 13.9%로 식당·호텔 관리자와 함께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이어 농장 관리자(13.3%), 법조인(13.0%), 치과의사(11.1%), 약사(11.1%), 소프트웨어 개발자(10.6%), 초등학교 교사(9.8%) 순으로 동종 직업 결혼 비율이 높았다.

그렇다면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과 결혼한 비율이 높은 직업은 무엇일까? WP 조사에 따르면, 소방관 중 9.7%는 간호사와 결혼한 것으로 집계됐고 초·중등 교사와 결혼한 비율은 6.8%였다. 또 경찰관이 초·중등 교사와 결혼한 비율은 5.9%, 간호사와 결혼한 비율은 5.8%였다.

WP는 이를 성비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소방관이 나 경찰관은 남성 종사자가 많은 만큼 직업 밖에서 커



▲ 2012-2021년 미국에서 동종 직업 내 결혼 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의사(18.5%)다. 사진=shutterstock

플이 될 확률이 높는데, 특히 여성 종사자가 많은 간호사나 교사와 결혼이 종종 성사된다는 것이다.

남성 종사자가 많고 육체노동 위주인 직업에서는 외별이도 많다고 WP는 전했다. 실제로 군인은 직장에 나가지 않는 배우자를 둔 비율이 40%를 웃돌았고, 원유·건설·농장 등 생산직 종사자도 직장에 나가지 않는 배우자를 둔 비율이 30%를 넘었다.

작년, 미국인 기부금 감소

미국인들이 지난해 수십년 만에 처음으로 기부금 규모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뉴욕증시가 팬데믹 이후의 폭등세를 마감하고 하락세로 돌아서고,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치솟던 때이다.

지난 21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CNN은 전날 인디애나대의 '기빙 USA 2023: 2022년 자선기금 연간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인들의 지난해 기부금 규모가 사상최대를 기록했던 2021년에 비해 3.4% 감소한 4,999억달러로 줄었다고 보도했다. 물가상승을 반영하면 감소율은 10.5%에 이른다. 지난 40년간 자선 기부금이 감소한 것은 단 4차례 불과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식시장 하강이 기부금 감소의 주



▲ 작년 미국인들의 기부금 규모는 2021년 대비 3.4% 감소했다. 사진=shutterstock

된 배경이었다. 지난해 뉴욕증시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8.11% 폭락했다.

주식시장이 폭락한 가운데 인플레이션은 폭등했다. 지난해 미 인플레이션은 40여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었다. 물가가 뛰면서 구매력이 줄어든 가운데 소비자들의 씀씀이를 좌우하는 또 다른 변수인 이른바 '부의 효과(Wealth effect)'가 마이너스(-)가 된 것이다. 재단, 기업 등의 자선기금 기부 역시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와중에도 큰 손들의 기부는 빛을 발했다. 미 최고 부자들의 기부는 2년 연속 전체 개인 기부의 5%에 육박했다.



사장님,
칭내세요!
대박나게 도와 드릴게요.

대박사인

배너, 메뉴보드, 전단, 명함 등
각종 실내외 사인부터
광고, 디자인까지-

Tel.(323)641-7907

1890 W Washington Blvd
Los Angeles, CA 90007